

엔비디아 HBM 공급 귀추... 삼성전자 '6만전자' 기대감

삼성전자 5만7600원, 5.3% ↑
엔비디아 GTC 기대감 반영된 듯
美 관세, 1분기 실적감소 예상 등
반도체 회복 예상에도 우려 남아

“뜻이 ‘오만전자(삼성전자 5만원)’에서 이룬 것 같이 ‘십만전자’도 이루어지리라.”

최근 직장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른바 ‘삼기도문(삼성전자+기도문)’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를 향해 질주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하락은 막고 상승을 기원한다’는 간절함을 담아 만든 글이다.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의 기도문이 통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대상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 이슈 해소 여부와 시점에 따라 주가의 방향과 상승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는 전 거래일 대비 5.30% 상승한 5만 7600원에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9일 AI

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와 각종 솔루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GTC에서도 젠슨 황 CEO가 삼성 HBM 관련 질

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HBM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세대 GPU ‘루빈’에 HBM4가 탑재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D램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HBM 매출 급감 및 낸드 업황 악화, 비수기 진입으로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는 5조2901억

원으로 작년 동기(6조6060억원)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저점 이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사 메모리 재고 조정 마무리와 견조한 서버 수요로 전사 분기 증익세를 보일 것”이라며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B(주가순자산비율) 기준 0.88배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도 높다”고 밝혔다.

외국인 ‘팔자’도 부담이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12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역대 3번째로 긴 순매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역대 1위는 2006년(2006년 2월~2007년 3월) 기록했는데 당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4개월 연속 순매도했다. 2위는 2020년 기록한 9개월 연속 순매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식투자자 1423만명... 전년비 0.5% 증가

예탁결제원, 작년 말 결산법인 현황
삼성전자 투자자 약 567만명 '1위'
이어 카카오·네이버 등 상위권에

지난해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법인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약 567만명으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687곳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총 14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보다 0.5% 증가한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가 1410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법인은 5만6000명, 외국인은 3만명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5.79개 종

목에 투자했고,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4112주였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평균 9.79개, 7.12개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보유자 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56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169만명), 네이버(91만명)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5만명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 수를 기록했고, 에코프로(44만명), 카카오게임즈(24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투자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50대가 316만명(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01억주(34.6%)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32만명(51.9%), 여성이 678만명(48.1%)이었다. 소유 주식 수 기준으로

는 남성 416억주(71.8%), 여성 164억주(2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 투자자가 370만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41만명), 부산(86만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투자자는 11만4000여명(0.8%)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대비 투자자 수와 보유 주식 수는 서울이 각각 36.6%, 511억주(50%)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와 성별, 연령을 종합할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50대 여성(4만4799명), 경기 수원시 40대 남성(4만2943명), 경기 용인시 50대 여성(4만2519명) 순이었다. 보유 주식 수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50대 남성(13억 9088만주)과 60대 남성(10억 216만주)이 가장 많았다.

/원관희 기자 wkh@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이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25년 뉴시니어 TDF·ETF'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하나자산운용, TDF·ETF 사업 강화

퇴직연금 시장 공급자 자리매김 일한
1조 이상 '메가 ETF' 시장진입 목표

하나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을 강화한다.

하나자산운용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TDF·ETF 시장을 타깃으로 한 회사의 성장 방향을 발표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하나자산운용이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펼친 덕분”이라며 “올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나 더넥스트 TDF’의 운용 경과 및 향후 방향, 신규 상장되는 ‘1Q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TF’ 소개와 함께 하나자산운용의 ETF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하나자산운용은 TDF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사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TDF’는 2월 18일 기준 C-f 클래스 누적 수익률이 8~11%를 기록하며 각 빈티지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권정훈 하나자산운용 운용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TDF 6개 빈티지(2030·2035·2040·2045·2050·2055) 모두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며 “타사 주요 티어 대비 5% 이

상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TDF 성과는 글로벌 주식 EMP(ETF Managed Portfolio) 운용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더넥스트 TDF는 해외 주식은 환노출 전략을, 해외 채권은 환헤지 전략을 채택했다.

지난해 ETF 브랜드 ‘1Q’를 출시하고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 하나자산운용은 ETF 설계와 운용 방식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1Q’는 출시 8개월 만에 AUM 1조 358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248%의 성장률을 보였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ETF·퀀트솔루션본부장은 “‘1Q 미국 S&P500 ETF’는 3월·6월·9월·12월 월중(15일) 분배 구조를 적용해 기존 월말(30일) 지급 상품과 차별화했다”며 “액면가는 약 1만 원으로, 경쟁 상품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총보수도 0.0055%로 국내 상장된 S&P500 ETF 평균 대비 1/7 수준이며, 운용보수는 0.001%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 상품은 18일 상장된다.

끝으로 하나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집중하며 1조원 이상의 ‘메가 ETF’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규모의 경쟁, 범위의 경쟁, 혁신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 핵심 공급자가 될 것”이라며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뉴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韓 기업, 주주보호·주주환원 G20국 최하위 수준

한은, 주주환원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성장성·안정성 양호, 기업가치 최하위

배당금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는 올라가지만,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높이는 기업은 기업가치 상승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자본적 지출(투자)을 통한 수익성·성장성 개선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성장성·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기업가치는 G20 회원국 16개국 가운데 최하

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율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로 집계됐다. 튀르키예(9.4%), 인도(7.7%)와 같은 신흥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0.1%), 영국(0%) 등 선진국에 비하면 높다. 부채비율도 우리나라의 경우 2.4%로 비교대상국가의 평균 수준(2.9%)보다 낮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주보호와 주주환원이다.

개별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6.8로 16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기업별 편차도 1.70으로 영국(0.95)과 미국(1.05)보다 컸다.

주주환원도 최하위 수준이다. 순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한 비율인 배당성향을 국가별 MSCI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1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배당금 외에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주주환원(영업현금 흐름대비 주주환원) 규모는 0.2로 튀르키예(0.1)와 아르헨티나(0.1) 다음으로 저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주주보호, 주주환원과 함께 현금성 자산 비중도 낮았다. 통상 주주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 여유자금을 주주환원에 활용하지 않아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투자 등을 위해 자본적 지출이 많아 현금성 자산 보유가 낮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